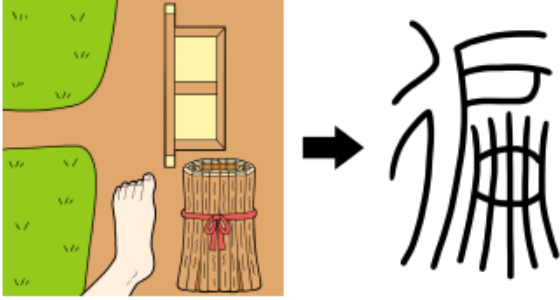


회의문자①



遍

두루 편

遍자는 '두루'나 '모든', '널리'라는 뜻을 가진 글자이다. 辵(쉬엄쉬엄 갈 착)자와 扁(넓적할 편)자가 결합한 모습이다. 扁자는 글이나 그림을 문 위에 걸어 놓던 편액(扁額)을 표현한 것으로 '넓적하다'나 '두루'라는 뜻이 있다. 이렇게 '두루'라는 뜻을 가진 扁자에 辵자가 결합한 遍자는 전국으로 연결된 길을 따라 문물이 전달되듯이 어떠한 영향이나 작용 따위가 '두루 퍼지다'라는 뜻으로 만들어졌다. 그러니 扁자는 발음역할을 하면서도 전면을 뒤덮는다는 의미를 함께 전달하고 있는 셈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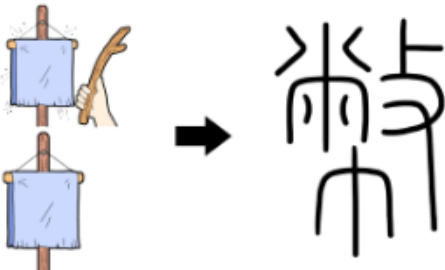
遍

소전

遍

해서

형성문자①



幣

화폐 폐:

幣자는 '비단'이나 '화폐', '폐백'이라는 뜻을 가진 글자이다. 幣자는 敝(해질 폐)자와 巾(수건 건)자가 결합한 모습이다. 敝자는 막대기에 걸어놓은 천을 몽둥이로 두드리는 모습을 그린 것이지만 여기에서는 발음역할만을 하고 있다. 幣자는 본래 '비단'을 뜻하기 위해 만든 글자였다. 지금도 그렇지만 고대에는 '비단'이 귀하면서도 비싼 물건이었다. 그래서 혼례 때는 귀한 비단을 보내 예의를 갖추곤 했다. 幣자에 '폐백'이라는 뜻이 있는 것은 바로 이 때문이다. 비싸고 귀한 비단은 한때 '화폐' 대응으로 쓰이기도 했다. 이러한 이유로 幣자는 '비단'이나 '화폐', '폐백'과 같은 다양한 뜻을 갖게 되었다.

幣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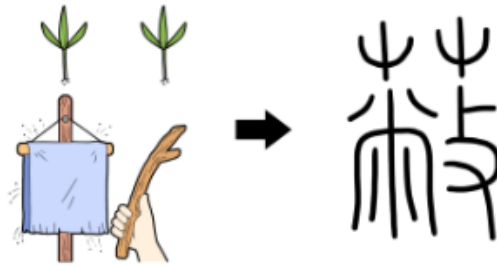
소전

幣

해서

3
-
283

회의문자①



蔽

덮을 폐:

蔽자는 '덮다'나 '가리다'라는 뜻을 가진 글자이다. 蔽자는 艹(풀 초)자와 敝(해질 폐)자가 결합한 모습이다. 敝자는 천 쪼가리를 뭉둥이도 두드리는 모습을 그린 것으로 '해지다'나 '가리다'라는 뜻을 갖고 있다. 蔽자에서 말하는 '덮다'나 '가리다'라는 것은 사물을 무언가로 덮어 보이지 않도록 한다는 뜻이다. 그래서 蔽자에 쓰인 艹자는 짚을 엮어 만든 덮개를 의미하고 敝자는 '가리다'라는 뜻을 전달하고 있다.

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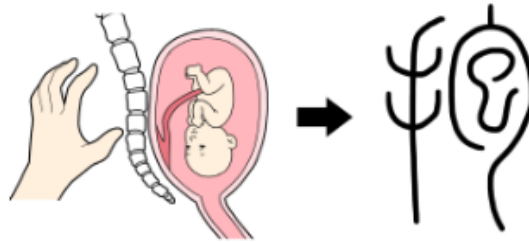
소전

蔽

해서

3
-
284

회의문자①



抱

안을 포:

抱자는 '안다'나 '품다', '가지다'라는 뜻을 가진 글자이다. 抱자는 手(손 수)자와 包(쌀 포)자가 결합한 모습이다. 包자는 태아가 태보에 들어가 있는 모습을 그린 것으로 '싸다'나 '감싸다'라는 뜻을 갖고 있다. 抱자는 이렇게 '감싸다'라는 뜻을 가진 包자에 手자를 결합한 것으로 '손으로 감싸 안다'라는 뜻으로 만들어졌다. 즉, 가슴에 품는다는 뜻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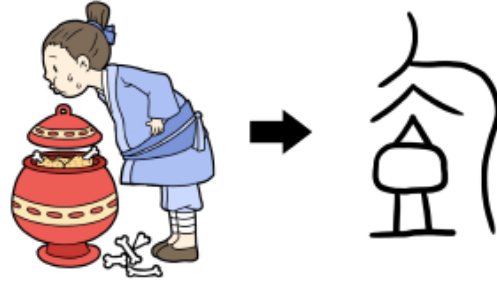
抱

소전

抱

해서

회의문자①



飽

배부를
포:

飽자는 '배부르다'나 '속이 꽉 차다'라는 뜻을 가진 글자이다. 飽자는 食(밥 식)자와 包(쌀 포)자가 결합한 모습이다. 包자는 자궁에 있는 아이를 그린 것으로 '싸다'나 '감싸다'라는 뜻을 갖고 있다. 그래서 飽자는 식사로 배가 부른 상태를 표현하는 것으로 해석하기도 한다. 그런데 飽자의 갑골문을 보면 包자가 아닌 欠(하품 흠)자가 飢 그려져 있었다. 欠자가 입을 크게 벌리고 있는 사람을 그린 것이니 이것은 배가 불러 트림하는 모습을 표현한 것이다. 그러나 후에 包자가 뜻과 발음을 대신하게 되면서 지금은 飽자가 '배부르다'라는 뜻으로 쓰이고 있다.

飢

갑골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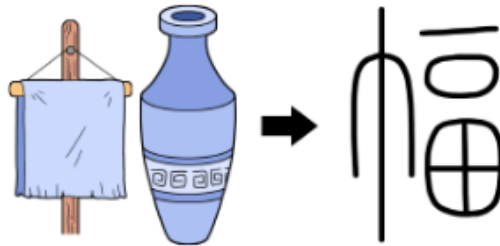
飢

소전

飽

해서

회의문자①



幅

폭 폭

幅자는 '너비'나 '폭', '넓이'라는 뜻을 가진 글자이다. 幅자는 巾(수건 건)자와 畝(가득할 복)자가 결합한 모습이다. 畝자는 향아리에 물이 가득 담겨있는 모습을 그린 것으로 '가득하다'라는 뜻을 갖고 있다. 幅자는 본래 천의 너비를 뜻하기 위해 만든 글자였다. 접혀있는 천으로는 크기를 가늠하기가 어렵다. 그래서 幅자는 '가득하다'라는 뜻을 가진 畝자에 巾자를 결합해 옷감을 넓게 펼친다는 뜻을 표현하고자 했다. 옷감을 펼치면 넓은 면적을 차지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幅자는 '너비'나 '폭'과 같은 사물의 범위라는 뜻을 갖게 되었다. 참고로 幅자는 '두건'이라는 뜻으로도 쓰이는데, 이때는 '복'이라 발음을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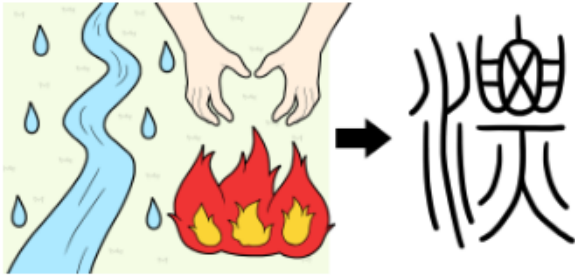
幅

소전

幅

해서

회의문자①



漂

떠다닐
표

漂자는 '떠다니다'나 '(물에)뜨다', '유랑하다'라는 뜻을 가진 글자이다. 漂자는 水(물 수)자와 票(불뚱 툴 표)자가 결합한 모습이다. 票자는 날아오는 불뚱을 손으로 잡는 모습을 그린 것이다. 나무가 타면 뿌연 재가 공중으로 날아오르게 된다. 이렇게 가볍게 날아다니는 재를 뜻하는 票자에 水자가 결합한 漂자는 물 위를 둥둥 떠다닌다는 뜻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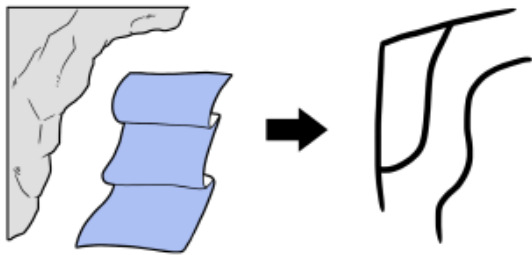
漂

소전

漂

해서

회의문자①



匹

짝 필

匹자는 '짝'이나 '상대', '(길이의 단위)필'이라는 뜻을 가진 글자이다. 匹자는 匚(감출 헤)자와 八(여덟 팔)자가 결합한 모습이다. 그러나 匹자는 '감추다'라는 뜻과는 아무 관계가 없다. 匹자의 금문을 보면 '언덕'을 뜻하는 厂(기슭 엄)자 앞에 물결 모양이 𠂔 그려져 있었기 때문이다. 이것은 긴 '천'을 표현한 것이다. 고대에서 옷감이 길이의 단위로 쓰이기도 했다. 비단 1필(匹)이 약 12m 정도이니 상당히 긴 길이를 뜻했다. 비단을 그린 글자에 厂자가 쓰인 것도 야외에서만 긴 길이를 측정할 수 있다는 뜻이었다. 이렇게 긴 천의 길이를 재기 위해서는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했을 것이다. 그래서 匹자는 짝을 맞춰야 길이를 잴 수 있다는 의미가 파생되면서 '짝'이나 '상대'라는 뜻을 갖게 되었다.

匹

금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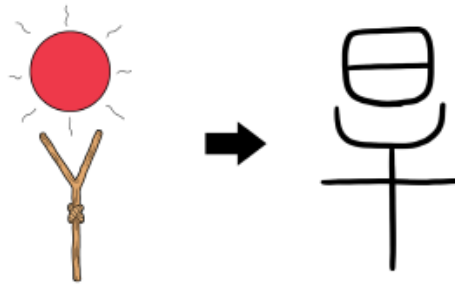
匹

소전

匹

해서

회의문자①



旱

가물 한:

투자는 '가물다'나 '사납다', '가뭄'이라는 뜻을 가진 글자이다. 투자는 日(해 일)자와 干(방패 간)자가 결합한 모습이다. 干자는 동물이나 적의 침입을 막기 위한 울타리의 일종을 그린 것이다. 干자는 나무를 얼기설기 엮어 만든 것이기 때문에 그늘을 만들 수 없다. 여기에 태양을 그린 日자가 더해진 투자는 강렬한 햇볕을 막지 못한다는 의미에서 '가물다'라는 뜻으로 쓰이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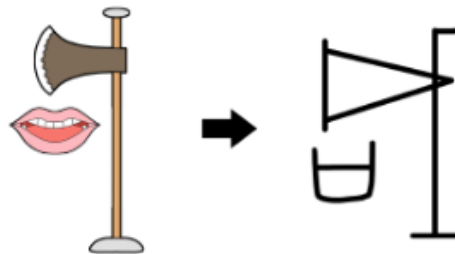
旱

소전

旱

해서

회의문자①



咸

다 함

咸자는 '다하다'나 '모두', '남김없이'라는 뜻을 가진 글자이다. 咸자는 戌(개 술)자와 口(입 구)자가 결합한 모습이다. 戌자는 날이 달린 창을 그린 것입니다. 고대에는 큰 싸움을 앞두고 병사들의 사기를 높이기 위해 함성을 지르게 했다. 함성을 지르면서 상대의 기선은 제압하고 아군의 사기는 높이고자 했기 때문이다. 咸자는 창을 들고 다 같이 함성을 외치는 모습을 표현한 것으로 누구나 빠짐없이 힘껏 소리를 지른다는 의미에서 '모두'나 '남김없이'라는 뜻을 갖게 되었다. 여기에 다시 口자가 더하면 '고함'이라는 뜻의 喊(소리 함)자가 되는 것도 바로 이 때문이다.

咸

갑골문

咸

금문

咸

소전

咸

해서